조선

2025 3

(826)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절에 즈음하여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적혁명무력의 최고 군사정치학원인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였다

14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2 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진행

26 Ⅱ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드팀없는 실행을 위한 2025년도 대건설투쟁이 개시되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32 Ⅱ 최대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 착공식이 성대히 진행

38 Ⅱ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42 Ⅱ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완결단계과업수행에 착수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48 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소　식

50 Ⅱ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

54 Ⅱ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첫 실체들이 련이어 준공
- 고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구성시 지방공업공장 준공
- 어랑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장풍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금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동신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운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이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72 Ⅱ 지방변혁의 새 기적을 보란듯이 안아올 창조의 열광, 활기찬 전진기세

오늘의 조선

76 Ⅱ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표　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뒤표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편　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승 룡, 리금주

42

50

54

72

76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조선인민군창건절에 즈음하여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모습을 영광의 군기에 아로새기고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억척같이 수호하고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는 성스러운 사명에 언제나 충실해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오늘 건군사에 또 한해 승리와 기적의 년륜을 기록하며 불멸의 그 명성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자기의 창건 77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7돐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고 장병들을 고무격려하시였다.

국가수반을 영접하는 엄숙한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와 영광의 륙, 해, 공군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노광철동지, 정경택동지,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국방성 주요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군정간부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성과 조선인민군 각급 군정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건군절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백전백승으로 불멸할 영광의 군기들을 혁혁히 휘날리며 조국땅 방방곡곡의 격동적인 사변과 기적들마다에 열혈의 투쟁사를 긍지높이 새겨가는 조선인민군의 영웅적기개와 숭고한 혁명정신에 뜨거운 경의를 표하시면서 혁명의 방대한 중임을 떠맡아 고귀한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전군의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군대라는 성스러운 부름에 항상 충실하여 특유의 정신과 고결한 넋으로써 전설적인 승리와 기적의 년대들을 떠받들어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명성과 영광을 값높이 평가하시고 조국의 행복과 평안을 굳건히 지키고 더욱 강대한 미래를 건설해감에 매진하고있는 우리 군대 장병들의 공훈과 업적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주변환경을 비롯한 세계적인 정치군사적 및 지정학적구도변화의 특징을 개괄하시면서 그 어떤 가변적인 안전형세

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공화국무력의 림전대응태세를 더욱 고도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반도지역에 상시전개되고있는 미국의 핵전략수단들과 실전수준에서 벌어지는 미국주도의 쌍무 및 다자적인 핵전쟁모의연습들, 미국의 지역군사쁠럭각본에 따라 구축된 미일한 3자군사동맹체제와 그를 기축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새로운 격돌구도를 만드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에 엄중한 도전을 제기하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힘의 우위를 숭상하는자들에게는 오직 그들만이 리해할수 있는 언어로 말해주는것이 정답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역정세의 불필요한 긴장격화를 바라지 않지만 새 전쟁발발을 막고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안전을 담보하려는 지향으로부터 지역의 군사적균형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책을 강구할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지난해 세계지정학적충돌과 대결의 무대로 되여온 가자지대와 수리아를 비롯한 중동위기와 우크라이나문제가 올해에도 긴장한 국제정세흐름의 기본축으로 흐를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세계도처에서 미국이 빚어낸 지정학적위기들은 새로운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성을 더욱 키우고 국제평화와 안전은 물론 인류의 각 활동령역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인의 커다란 우려속에 3년째 지속되고있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상황을 부추기는 전쟁기계의 막후중심에는 일극패권수립야망에 환각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고정직함을 달고 다니는 미국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하시면서 로씨야에 전략적패배를 안기려는 실현불가능한 망상으로부터 전쟁의 장기화를 의도적으로 조장시키는 미국과 서방집단의 무모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시였다.

국제적정의를 부정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배격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부합되게 자기의 주권과 안전,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세계의 크고작은 분쟁과 류혈참화의 배후에 어김없이 얼른거리는 미국의 검은 그림자는 한계없는 방위력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당과 정부의 로선이 가장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공화국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자기의 최고의무에 언제나 실천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핵력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사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우리 국가의 명성과 힘의 상징인 조선인민군의 장래는 바로 지휘관들에게 중요하게 달려있다고 언급하시고 인민군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문제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여기에서 특히 우리 군인들을 적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견결한 대적관념을 꽉 채운 사상과 신념의 강의한 투사들로 키우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능력을 최고도에로 끌어올리는 원칙에서 훈련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올해를 훈련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하여서와 전쟁준비를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철저히 갖출데 대한 문제, 강철같은 규률과 건전한 군풍을 수립하기 위한 강한 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억척같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투쟁사와 위훈은 무궁강대한 우리 국가의 장성발전속에서 더욱 격동적이며 숭고한 전기를 새겨나갈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강대함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계속 용감히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성방문을 기념하여 국방성 지휘관들과 직속구분대 군인들, 조선인민군 군종 및 각급 대련합부대와 관하 련합부대, 부대 군정지휘관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무력투쟁사에 특기할 창군과 전승의 날은 비록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아득히 멀어져도 영웅조선, 자주강국의 영원한 승리전통의 시원을 열고 백전필승의 전통을 부국강병의 포석으로 깔아준 혁명선렬들의 넋과 숨결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시대와 우리 군대의 명예를 걸고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기적적무훈들과 경이적인 신화창조로 우리 세대의 떳떳한 새 력사를 긍지높이 써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지휘관들이 위대한 개척을 더 위대한 계승으로 빛내여나가야 할 중임을 백배로 자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위업을 무장으로 담보한다는 특유의 자부심과 강한 자존심, 불요불굴의 전투정신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는 성전에서 언제나 불후의 명성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적혁명무력의 최고군사정치학원인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월 24일 주체적혁명무력의 최고군사정치학원인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하시였다.

김일성정치대학은 국가수반을 정중히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영광의 군기에 전투적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 대학의 교육일군과 학생이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권위있는 군사정치학원에서 견결한 혁명정신과 혁혁한 교육과학성과로 우리 군대의 사상적정예화를 위한 성업을 믿음직하게 담보해가고있는 교직원들과 앞날의 유망한 정치일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가고있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하였다.

대학의 위대한 명예와 공훈이 새겨진 군기를 휘날리며 교직원, 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적강군건설사에 특기할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장구한 세월과 력사의 변천속에서도 우리 군대의 정치사상적풍모가 창군세대앞에, 조국과 인민앞에 시종일관 떳떳하고 충실한것은 혁명적무장집단의 계승성을 담보하는 관건적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견실하게 수행하여온 **김일성**정치대학의 공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전환과 변혁의 새시대에 대학의 명성이 긍지로 빛나고 그 존재감이 비상한 의미로 부각되는것은 대학이 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당의 령도에 절대충성하는 혁명강군의 근본을 지켜주는 곳이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적건군사의 어제와 오늘에 우리 군대의 무장은 극적인 대조를 이루지만 거기에 재운 사상만은 변하지 않았으며 사상제일주의의 위력이 날날이 검증되는 혁명투쟁행정에서 **김일성**정치대학은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지킴에 무한히 충직했다고 하시면서 창립의 그날로부터 장장 80년간 공산주의적인간들을 많이 육성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을 보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여온 대학의 영예로운 연혁을 감회깊이 소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군대가 이룩하는 영웅적위훈의 결에 그 숭고한 정신과 용감성을 배양시켜주는 정치일군들과 함께 그들의 모교를 나란히 세우고있다고, 영광의 군기들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조국의 부름이라면 고난도 희생도 웃으며 맞받아나가는

무비의 충실성과 영웅성을 우리 군대고유의 품격으로 높이 떠올리고있는것은 어떤 학술적권위나 교육과학성과에도 비길수 없는 대학의 가장 빛나는 공적이라고 평가하시고 당의 강군육성위업을 위해 바친 교육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정의로운 위업, 가장 정의로운 국가, 가장 정의로운 인민을 지켜선 우리 군대는 마땅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되여야 하며 이 중대한 력사적사명, 무거운 책임을 위하여 우리 혁명무력이 드팀없이 고수강화해나가야 할 제일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아닌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우월성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느 세기, 어느 나라에서나 무장력의 2대요소로서 군인과 무기를 꼽는것이 정설로 굳어져왔고 21세기에 이르는 오늘까지 무력건설과 전쟁행정에서 군사기술중심론을 제창하는데서 탈피하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력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현대전쟁을 고찰해보아도 군대의 사상건설을 무시한 군사기술중심론의 제한성을 실천적으로 여실히 목견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대의 사상적, 도덕적우월성이자 군대의 질적우세라는것은 엄연한 철리임을 강조하시고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기에 앞서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것이 군건설에서 중핵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군인과 무기, 사상을 무장력의 3대요소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며 군대의 정치적력량을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강군건설의 기본방도가 있다는것이 우리가 다시금 명백히 내리게 되는 결론이라고 하시면서 이로부터 우리 군대의 건설방향은 변함없이 우선적으로 철저히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앞세우고 전투대오를 부단히 정간화하며 그다음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령역의 군사기술장비고도화를 실현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의 격변속에서 건국초유의 변혁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오늘 국가전략구상과 정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리 군대의 역할은 어느때보다 비상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하시고 우리 군대가 더욱 막중해지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감당하자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군사활동마당들에 언제나 사상의 힘을 백배하기 위해 맹활약하는 정치일군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의 정치적력량을 굳건히 담보해야 하는 최고군사정치학원으로서의 **김일성**정치대학의 중대한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교양자적위치에 서있는 정치일군들속에서 당중앙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하는 일부 편향들이 나타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그 원인을 분석하시면서 군대의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제반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전망성과 직결되여있는 대학의 중요한 위치와 임무를 놓고볼 때 우리 군대의 최고정치학원은 마땅히 대학우의 대학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완전히 일신시키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정치사상강군화로선관철의 기본거점이고 우리 군대의 영웅성을 키우는 원종장인 대학이 자기 본도에 더욱 충실할 때 우리 혁명무력은 더욱 강해지고 불패의 위력은 끊임없이 배가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후의 존엄과 영광이 그 성스러운 혈맥과 백승의 전통을 천만년에로 이어주는 **김일성**정치대학과 더불어 만대에 빛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건설연구실, 교육정보종합조종실, 교육성과전시관을 비롯한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가 우리 군대라면 우리 군대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존재는 바로 이곳 정치대학이고 여기서 충실히 복무하는 교육자들과 일군들이라고 값높이 평가하시면서 대학이 모든 세대의 정치일군들을 한모양새로 다듬고 키워내며 전군에 우리 당의 붉은 사상을 끊임없이 재워주는 유능한 정치일군들을 배출하고있기에 우리 군대가 정치사상

적으로 견결하고 전투력에 있어서 최강이라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생들의 당정치사업방안에 대한 토론도 들어주시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군사사상과 리론, 우리 식의 전법에 정통하고 각이한 전투정황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능란하게 벌려나갈수 있는 정치일군들로, 전군의 사상정신적정예화와 전쟁준비완성을 강력히 추동하는 능숙한 정치활동가들로 육성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학의 모든 교원들이 교육자가 되기 전에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실천과 실력, 인격으로 당과 제자들앞에 검증해보일데 대하여서와 신념화된 충성과 순결무구한 애국의 마음, 완벽한 교육자적능력과 과학리론적권위로써 당정치일군육성사업의 혁신과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학방문을 기념하여 교직원, 학생들과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습과 군무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뜨겁게 격려해주신데 이어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건군사에 불멸할 화폭을 남기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우리 당이 제일로 신임하고 그 역할에 특별히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는 핵심중의 핵심혁명가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누구보다 조선로동당의 넋과 숨결이 온몸에 푹 배인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여 자기의 훌륭한 역할로써 혁명군대의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김일성**정치대학과 강건명칭종합군관학교 교직원, 학생들사이의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월 25일 우리 국가 군사교육기관의 모체이며 가장 관록있는 지휘관양성기지인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에 도착하시여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전우이며 유능한 군사지휘관이였던 항일혁명투사 강건동지의 반신상을 찾으시고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우리 군대는 강건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과 눈부신 강성을 위한 성업에 고귀한 삶을 굳건한 주석으로 고인 조선인민군 초대총참모장 강건동지의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위대한 창군세대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국가수반을 영접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과 조국이 맡겨준 신성한 교단을 순결한 량심으로 지키며 군사간부육성사업의 줄기찬 혁신과 발전에 아낌없는 노력을 바쳐가고있는 전체 교육일군들과 앞날의 훌륭한 지휘관들로 준비해가고있는 학생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군관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분렬행진을 사열하시였다.

이어 학생들의 격술시범출연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 책임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전술연구실, 부대지휘관리연구실, 군사지형학연구실, 사격관을 비롯한 교내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방위의 기본력량으로서 혁명의 줄기찬 앙양을 선도해온 우리 무력의 위훈넘친 행로에는 군대의 핵심진지를 굳건히 지켜온 군사교육기관들의 값높은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있지만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와 같이 력사와 전통이 고귀하고 긍지높은 군사학원은 없다고 하시면서 공화국무력의 첫 군기를 수여받고 정규군의 첫 열병식에 제1종대로 선두에 선것만 보아도 영광의 건군사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를 잘 알수 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관학교가 각급 군사교육기관들의 전위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인민군대의 기층을 더욱 튼튼히 하여 전군강화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군사정책실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교육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한 군력강화의 제1제대, 최전방이며 군사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데 강군육성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이 우리 당의 변함없는 지론이라고 하시면서 종합군관학교를 현대교육문화가 완벽하게 구현된 군지휘관양성의 표준단위로 훌륭하게 일떠세우고 나라의 군사교육부문을 새롭게 일신시키자는것이 자신의 드팀없는 결심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학교 교원, 학생들의 실탄사격경기와

종합기재체육훈련모습도 보아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질적강화와 그 위력은 전술급단위 초급지휘관들을 어떻게 키워내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고, 군사교육부문에서는 마땅히 학생들에게 군사지식을 전수하기에 앞서 혁명을 하겠다는 견결한 혁명의식부터 심어주어야 한다고, 이와 함께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능란한 전투조법, 강한 육체적능력을 소유한 실전형의 싸움군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의 기본 임무는 당과 혁명, 인민을 위한 충실한 복무의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어떤 어려운 과업도 훌륭히 수행하는 영웅들을 키워 강군의 초석을 억척으로 다지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창군의 첫 세대로부터 오늘까지 혁명무력의 지휘성원들에게 일관되여온 충성의 신념과 애국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호전성이 력사상 가장 로골적으로 표현되고 전쟁과 류혈이 일상사로 되고있는 오늘의 국제적환경은 우리 무력이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군사교육부문에서 군사실천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현대전장들에서 이루어지는 실전경험들을 우리식으로 소화습득하며 급속도로 선진화되고있는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에 정통하고 현대전에 상응한 지휘능력을 갖춤으로써 확실한 승리만을 이룩하는 야전형의 군사인재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학교의 교직원, 학생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가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진지, 강군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지켜온 성스러운 전통과 값높은 공적을 줄기차게 계승하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만반의 전쟁수행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군사지휘관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당의 강군건설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강건명칭 종합군관학교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새시대 군사교육혁명의 뚜렷한 변혁과 진보의 기틀을 마련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우리 군대를 영원히 백전백승하는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리정표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무기급핵물질생산의 주요핵심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현행 핵물질생산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핵물질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홍승무동지와 련관부문의 지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2024년에 핵물질생산부문과 핵무기연구소, 련관부문에서 경이적인 생산실적을 쌓아올린데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가 핵무력관련부문에 추가적으로 시달한 투쟁과업에 박차를 가하며 새로운 전망적인 사업들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핵무기생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기급핵물질생산의 주요핵심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현행핵물질생산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2025년 즉 당 제8차대회가 핵무기연구 및 생산부문에 제시한 5개년기간의 과업들이 완벽하게 수행되여야 할 올해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고, 올해는 우리 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핵무력강화로선을 관철해나가는 로정에서 중대한 기간내 과업들이 결속되고 차기임무로 이행하는 중대분수령인것으로 하여 관건적인 해로 된다고, 지금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무기급

핵물질생산계획을 초과수행하고 나라의 핵방패를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장성강화되는 우리 국가의 핵기술력량과 그들이 이룩해내는 결과들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비길데 없는 자존심이고 도도한 기상의 상징이라고 평하시면서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안전보장이야말로 가장 정정당당한 우리의 투쟁방식이고 선택이고 철리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대외적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적수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절대적힘은 그 어떤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 기하급수적인 증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환경은 이 나라의 오늘뿐 아닌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우리로 하여금 현존하는 각이한 위협들뿐 아니라 보다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위험성에도 전략적으로 대비하면서 국가의 주권과 리익, 발전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는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필수불가결로 제기한다고, 국위선양, 국익수호에 천사만사를 복종시키며 우리 국가의 핵대응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립장이며 변함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본분이라고 단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핵전문가들이 국가의 불변한 지론을 깊이 자각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분기하여 우리 국가의 압도적인 핵전력강화를 빛나는 증산실적으로 추동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지도는 국가방위력강화투쟁의 전위에 서있는 우리의 전체 핵과학기술력량을 크게 고무격려한 계기로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1월 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확대회의에서는 먼저 당규률을 전면거부하고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발생시킨 남포시 온천군당위원회와 군안의 지도간부들의 당규률위반행위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료해자료통보와 당중앙위원회 규률조사부 자료보고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용원동지와 규률조사부장 김재룡동지는 자료통보와 자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당 제8차대회 결정들을 완결하고 더 높은 발전단계에로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류례없이 방대한 투쟁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는 혁명의 선봉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 투신력을 발휘하여 당의 핵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의 요구와 격양된 혁명적분위기와는 너무도 상반되게 얼마전 온천군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군당전원회의준비를 너절하게 하고 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나서는 돌아앉아 당일군들을 포함한 40여명의 일군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발생시키였다.

이것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는것과 같은 안일해이된 생활을 하지 말데 대한 당내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우리 당력사에 이번처럼 군당책임일군이 직접 조직하고 군당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수십명에 달하는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가 그러한 부정행위를 감행한 망동은 일찌기 없었다.

온천군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집단적인 음주불량행위는 규률건설에 관한 당의 로선에 전면배치되는 행위이며 사건의 주모자, 가담자들은 지도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안에 혁명적인 도덕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당일군들 특히 당지도간부들이 생활 및 활동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내부규률을 어느때보다도 강화해야 할 시기에 발생한 온천군중대사건의 성격을 엄중한 당규률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우리당 규률건설로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대오의 굳건한 결속을 수비해온 규률, 당중앙의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전당의 조직사상적 통일을 지켜온 엄격한 정치도덕적계률과 비타협적인 투쟁이 없었다면 80년의 영광스러운 집권사와 그의 계승과 혁신을 설계하는 오늘도 없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중대한 당내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하는것이 혁명에 리롭고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이 시, 군강화에 주목하고 지방의 새로운 변혁사업들이 련이어 진행 또는 예견되여있는 중대한 시기에 지역발전의 직접적담당자로서 그 누구보다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할 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배치되는 행위를 저지르게 된 사상적근원과 그 엄중성을 신랄히 분석하시면서 이것은 우리당 강화의 초석을 허물고 나라의

200분의 1을 차지하는 한개 지역을 비당화, 비정치화, 비사회주의화의 함정으로 몰아갈수 있는 엄중한 사건일뿐만 아니라 일군의 직급을 람용하여 인민들이상의 특전을 챙기려드는 특권계층이 형성될수 있음을 직감케 하는 위험한 신호로도 된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의 건전한 기풍을 흐려놓고 혁명의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이색적이며 이질적인 사상요소들, 당규률을 허무는 정치적, 도덕적범죄는 한개 지역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새시대 당건설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힘을 넣어온 간부대오의 질적공고화가 실속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비판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겉보기에는 변화가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작풍과 규률준수기풍에서는 개선이 없다는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고 이로부터 찾게 되는 결론은 당건설로선이 아무리 혁명적이고 완벽하다 해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관철하겠다는 간부들의 사상적 각오와 노력이 없다면 리론을 위한 리론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회의가 우리 당의 창건 80돐을 맞게 되는 2025년의 벽두에 당의 기강을 바로세우는데 보다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재각성하고 재정립할수 있는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의 핵심이고 지도력량인 일군들의 당적자각과 정치의식, 혁명적기풍과 인민을 위한 복무정신을 더욱 공고히 배양하고 간부진영강화와 당건설에서 실질적인 진일보를 이룩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간주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운 당건설로정에서도 핵심과제, 중심과제는 역시 간부혁명화이며 그 해법은 전당적으로 교양과 단련, 투쟁을 보다 강도높게 벌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금후 당의 건전한 정치기풍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전당적으로 강력히 전개하게 될 조직사상공세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상세히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제일 경멸하는 당내부패와 온갖 규률위반행위들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압하는데 규률조사부문에서 기본과녁을 정하고 엄격한 규정과 세칙에 근거하여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올해를 혁명적당풍확립의 해, 전당강화의 해로 삼아 규률로 강건하고 혁명적당풍으로 활력넘치는 집권당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만년대계를 위하여,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조선로동당규약》 해당 조문에 따라 당의 내부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집단적으로 불량한 행위를 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당풍을 심히 훼손시켜놓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준 남포시 온천군당위원회를 해산할것을 결정지시하였으며 당내규률위반과 관련한 특대사건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확대회의는 다음으로 자강도 우시군에서 나타난 엄중한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취급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시군에서 당의 농촌건설정책과 농업정책집행정형을 전문적으로, 책임적으로 감시, 통제하여야 할 군농업감찰기관이 농업부문에 내재하는 주되는 위법행위들을 억제하고 정연한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데로 사업을 지향시킬 대신 법권을 악용하여 인민의 리익과 재산을 란폭하게 침해한데 대하여 준절히 엄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방의 세도군, 관료배들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과 인민사이의 성스러운 단결의 성새를 허물려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수 없는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단언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의 특대형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보고가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우시군농업감찰기관을 해산하고 새로 조직하며 반인민적행위를 조장, 묵인한 우시군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하였다.

특대범죄사건의 주모자들과 가담자들은 법적검토를 받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는 강철같은 규률의 반석우에 투쟁하는 당, 전진하는 당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각인시키였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존재방식으로, 당풍으로 하는 우리 당의 본태와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계기로 된다.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드팀없는 실행을 위한 2025년도 대건설투쟁이 개시되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온 나라를 강국의 국격과 국위에 맞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줄기차게 부흥시키는 세기적변혁의 보무를 더 크고 정확히, 책임적으로 내짚으면서 해마다 전국각지의 20개 시, 군이 변하는 거창한 중흥의 년대를 드팀없이 이어가려는 위대한 당중앙의 웅대한 뜻에 받들려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실행을 위한 2025년도 대건설투쟁이 개시되였다.

지방경제를 전국적판도에서 완전히 새로운 토대우에 재건하는 력사적위업수행의 돌파구를 기세차게 열어제낀 우리 당은 지방의 보다 폭넓고 실제적인 발전을 담보하며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확대심화된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확정한데 기초하여 보건시설, 종합봉사시설, 량곡관리시설건설을 지방공업공장건설과 병행시키는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였다.

전면적진흥의 새 령역과 경지를 개척하며 강력히 추진될 《지방발전 20×10 정책》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착공식이 2월 6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착공식장은 우리당 지방발전의 전략적대강을 관철하기 위한 첫해 투쟁을 대변혁의 고귀한 실체들로 빛내인 그 기세, 그 본때로 올해를 계속적이며 도약적인 성과로 굳건히 이어나갈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열광과 머지않아 일떠설 부흥의 재부들과 더불어 나날이 문명부유해질 희망넘친 래일을 락관하는 강동군 근로자들의 격정으로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리상실현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활동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열렬한 복무정신과 견결한 혁명의지로 전국이 변하고 흥하는 건국이래 미증유의 새 변혁시대를 펼쳐가시는 사회주의문명의 위대한 개척자이시고 창조의 거장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와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각급 지방발전20×10비상설추진위원회 성원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 평양시와 강동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의깊은 2025년도 건설사업이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건설착공으로 시작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의 진정어린 성의가 지방인민들에게 또 한가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의의깊은 2025년도 건설사업이 강동군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착공으로 시작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정부의 진정어린 성의가 지방인민들에게 또 한가지 가닿게 되고 새시대의 경이적인 변화가 조국땅의 또 한 부분에 깃들게 되는 기쁨과 감개함을 피력하시였다.

가닿게 되고 새시대의 경이적인 변화가 조국땅의 또 한 부분에 깃들게 되는 기쁨과 감개함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농격차를 근원적으로, 종국적으로 청산하는데서 지방인민들의 문화생활환경을 개변하는것이 가지는 절박성을 언급하시면서 온 나라가 문화수준에서도 통일되게 하는것이 지방발전정책의 리상적인 결과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건부문에 현대성과 선진성을 부여하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최우선과제임을 밝히시고 우리 보건을 이 나라 생명의 힘을 키우는 토양으로, 지방중흥의 튼튼한 뿌리로 새롭게 태여나게 하여 올해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청사에 기록되게 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절대적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시, 군에 현대적인 보건시설과 다기능화된 문화생활거점을 건설하는것은 모든 분야, 모든 지역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전략적가치가 큰 중대사업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초급한 과제이라고 하시면서 지방의 백년대계이자 우리 국가의 백년미래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의 착공식은 위대한 로정의 출발이자 결정적인 진일보이며 미래에로 향한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위대한 리상을 위하여, 우리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 용감히, 더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인민이 바라는 모든 숙망과 리상이 생활로, 현실로 펼쳐지는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 세상과 우리 식의 창조투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미래의 변혁상을 가슴벅차게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우렁찬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착공식에서는 건설자들을 대표하여 건설련대 련대장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그는 지방변천의 세기적대업실현에서 실제적이며 질적인 변화의 의미깊은 출발로 되는 필수대상건설에 진입하게 된 군인건설자들의 격정에 대하여 말하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슬하에서 참다운 인민관,

불굴의 개척정신, 창조의 억센 힘을 백배로 다져왔기에 신심은 충천하다고 토로하였다.

토론자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으로 대규모의 온실바다가 펼쳐진 강동군에 지방진흥의 새시대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당창건 80돐이 되는 올해를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일 결의를 엄숙히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승승발전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화폭이 펼쳐진 착공식장은 환희의 열파로 끓어번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발파단추를 누르시자 착공의 장쾌한 폭음이 울리였다.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절대의 사명으로 삼고 이민위천의 반석우에 후손만대 누려갈 만복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위대한 당중앙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이 활화와 같이 분출하는 속에 축포탄들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할 위대한 혁명사업에서 우리 군대특유의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더욱 용감히 발휘해나갈 전투적기세로 충천한 군인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초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변혁의 개척자, 행복의 수호자로서의 영예로운 본령에 끝없이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최대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착공식이 성대히 진행

김정은동지께서 열정넘친 격려사를 하시였다.

《열렬한 애국정신과 빛나는 공적으로 자랑높은 조선인민군 해군과 공군부대 장병들!

가장 영예로운 이름을 지니고있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 한몫 단단히 할 포부를 안고 중요건설전구에 나온 동무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 당과 정부는 재난을 가셔내고 사회주의 새 생활이 깃든 여기 압록강기슭에 전망성있는 새로운 지역발전계획을 실현시키자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선 대온실농장건설전역은 련속적이고 가속적인 투쟁으로 온 나라를 부흥시키는 우리 위업을 상징할것이며 우리 당이 설계하는 지방중흥, 농촌진흥의 더 높은 단계와 발전공정을 또 한번 선명히 그려줄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인민들을 위해 불같이 이어오신 헌신의 길우에 솟아난 인민의 보금자리에 보다 휘황한 앞날을 펼쳐주시는 친근한 어버이의 열화의 진정에 떠받들려 나라의 국경관문인 신의주시 하단리와 의주군 서호리지역에는 최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기지가 지방진흥의 활기차고도 거폭적인 진일보를 상징하는 창조물로 일떠서게 된다.

450정보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건설착공식이 2월 10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착공사를 하였다.

총리동지는 위대한 당이 향도하는 전변의 시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가 실현된 대온실농장들이 련이어 일떠서 인민생활향상의 새 경지가 개척되고있다고 하면서 도처에 솟아난 시대의 창조물들은 인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함에 모든것을 지향시키며 력사가 처음 보는 건설의 대번영기, 자립, 자존의 전성기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념원과 과감한 령도활동의 결정체이라고 말하였다.

총리동지는 이번 온실농장건설은 신의주시를 사회주의 조선의 발전상과 위력을 직관하고 대표할수 있는 선진적인 도시로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며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당이 밝힌 건설혁명의 뚜렷한 방략이 있고 억센 자신심과 불굴의 투지, 군민의 단합된 힘이 있기에 대건설전투가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나는 이 웅대한 지역발전사업도 자부하지만 그 실현의 중대한 임무를 가장 충성스러운 혁명무력의 군종대련합부대들과 불굴의 투쟁력으로 기세양양한 청년부대에 맡긴것을 더없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이적인 기적과 건설신화들이 창조되는 곳들에서 의례히 해군과 공군부대 장병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것은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항상 뜻을 함께 하는 나와 동무들사이에 필연코 맺어지게 되는 인연이라고 믿고싶습니다.

나는 우리 해군, 공군의 장병들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이 위대한 개척을 위대한 창조와 변혁으로 계승해나가는 정예대오의 특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가장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창조물을 조국과 인민앞에 선물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무들!

우리가 시대를 변혁할 자신심과 용기에 충만되여있는것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과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군대와 청년들이 있기때문이며 이 세상 누구도 못가본 길로 강국의 리정을 멈춤없이 밟아나가는것도 영웅적인 우리 군대와 청춘들의 위훈이 있기때문입니다.

이제 동무들이 일떠세우는것은 대규모의 온실농장이지만 그 절정에 솟는것은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권위이고 사랑하는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이며 마주오는 우리의 원대한 리상입니다.

동무들이 용솟는 젊음과 열정으로 빛내일 창조의 날들에, 고결한 정신과 기세찬 보무로 찍어갈 분투의 자욱들에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나날이 흥해가는 우리의 세월과 함께 부모형제들이 누려갈 앞날의 행복상이 언제나 동무들을 격려할것입니다.

우리모두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군대, 우리 청년들의 빛나는 명예를 위하여,

세상이 부러워할 이 고장의 개벽을 위하여,

어머니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을 기념하여 건설의 첫삽을 뜨시고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종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과 청년돌격대 지휘관들을 만나 격려해주시면서 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언제나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적인 실천으로 받들어온데 대하여 거듭 평가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온실농장건설과 병행하여 압록강하류 섬지역에 영구적인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그 어떤 자연재해로부터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게 제방공사를 맡아 질적으로 힘있게 추진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450정보온실농장과

특별소식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착공식이 2월 14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에게 손저어주시며 보다 큰 행복의 도래를 알리는 력사적인 계기를 맞게 된 락원군안의 전체 주민들과 일군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방의 자연경제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에 따라 오늘 신포시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기지건설에 착수하게 된다고,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을 결정한 후 당중앙위원회는 년초부터 적지확정으로부터 건축설계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을 연구협의하고 검토대책하도록 하였다고, 이 자리도 자신께서 직접 고른 자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면이 륙지로 안전하게 둘러막힌 이곳은 불리한 해양기상학적영향을 받지 않는데다 부두와 방파제를 건설하기도 좋고 양식장으로부터의 거리 또한 매우 가까우며 수생동식물자원과 해양생태학적환경도 우수하므로 양식사업소의 위치로는 정말 명당중의 명당이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현대적인 바다가양식사업소를 건설하는것과 함께 해안지대특성이 살아나게 살림집들까지 완벽하게 일떠세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포구의 어촌마을을 락원군에 선물하자고 한다고, 앞으로 이 어촌을 《락원포》라고 부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기쁨속에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도 제일 작은 군에 속하고 경제토대도 취약한 락원군의 발전전망은 바다를 잘 리용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락원군이 이름그대로 길이 흥하도록 확실한 발전토대를 갖추어주고 자랑할만한 사회주의락원의 본보기를 창조하자는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보다 더 특색있고 훌륭한 수산기지를 건설하고 아직 누구도 목견한적이 없는 희한한 어촌을 일떠세우면 그것이 곧 우리 당이 실행하는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전망성에 대한 직관으로, 락원군의 장래전변을 상징하는 표본으로 될것이며 군의 연혁사에도 빛나는 한페지를 기록하게 될것이라고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실행을 위한 한해 투쟁의 자랑스러운 결실로서 지난해말부터 한달나마 전국의 10분의 1에 달하는 지역들에서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련일 성황리에 진행된것은 우리의 투쟁령역이 비상히 넓어지고 우리 위업을 전진시킬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의 요구와 권익을 옹호함에 더욱 투철하고 견결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의 착공식은 인민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복무하는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원칙적립장을 재확인, 재천명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바다가양식은 이미 실리성과 전망성이 확증된 자원개발령역이며 해안지대에 위치한 시, 군들의 확실한 발전담보이라고 하시면서 바다를 낀 시, 군들에서 자연지리적조건과 해양생태학적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바다자원을 효과있게 동원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락원의 미래는 전적으로 주인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해양산업에 사활을 걸고 분기하여 바다가양식에서 락원군 특유의 새 경지를 개척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이 질적으로 개선된 윤택한 생활속에서 반갑게 맞이할 전면적부흥의 새시대, 새로운 발전의 격변기를 다름아닌 우리의 견결한 투쟁과 부단한 기적창조로써 활기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변혁의 원대한 위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드팀없는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을 기념하여 건설의 첫삽을 뜨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의 행복을 창조함에 바치는 우리 군인들의 뜨거운 진정과 과감한 분투에 경의를 표하시면서 인민군지휘관, 병사들이 무한한 충실성과 용감한 기질, 특유의 창조본때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우리 식의 리상적인 락원어촌을 일떠세우고 지방변혁의 새 기적을 보란듯이 안아올리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완결단계과업수행에 착수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문명부강의 최고리상을 향한 전면적발전의 새시대에 우리 평양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화려하게 전변시키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드디여 완결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당과 국가의 성스러운 발전사에 특기할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직접 구상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최중대과업으로, 숙원으로 내세우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실행의 뜻깊은 첫 착공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대건설전구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기시며 세상에 당당히 자부할 인민의 리상거리들이 년년이 일떠서는 새로운 평양번영기를 펼쳐주시였다.

기념비적인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마지막단계투쟁은 우리 당이 인민앞에 다지고 드팀없이 리행해온 서약을 완벽하게 결속짓기 위한 올해의 가장 중차대한 창조대전이며 당창건 80돐과 당 제9차대회를 향한 전인민적 총진군에 보다 큰 활력을 가세하는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다.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2월 16일 오후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내각,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군민건설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이민위천의 위대한 국가건설리념과 비범한 령도로 사상초유의 세기적승리와 대변혁들을 이룩하시며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복리와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부흥번영의 최전성기, 전면적륭성기를 줄기차게 열어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 인민의 자애로운 령도자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에 즈음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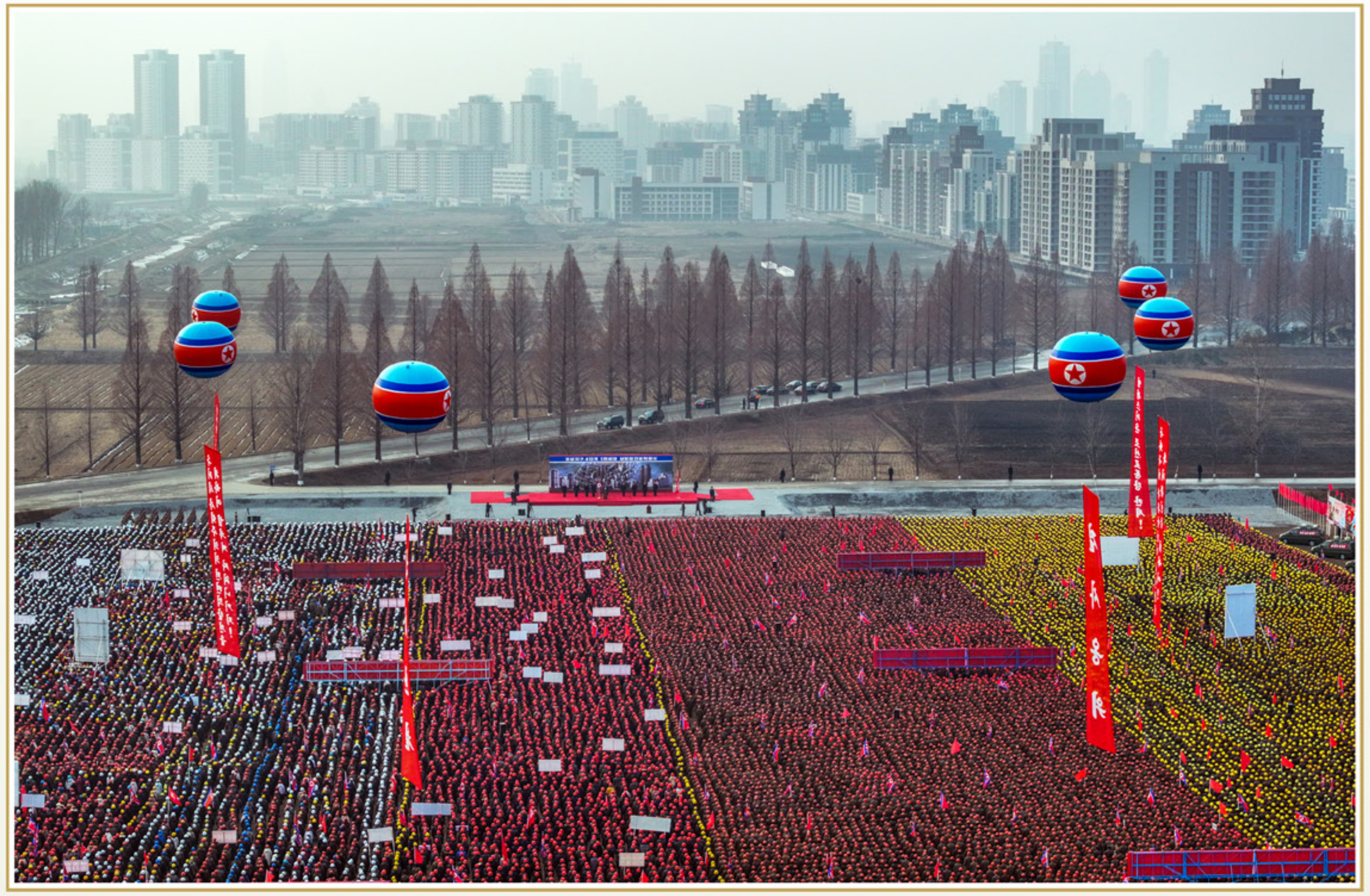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년간 한치 어김이 없었던것

처럼 오늘 또다시 새해년도 1만세대 공사에 착공하는 의식을 가지게 된 의의를 설명하시면서 보람찬 건설사업에서 혁혁한 공훈을 떨쳐온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보다 웅대한 목표실현을 향해 힘찬 보무를 내짚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에서 더 거창한 혁명에로, 한단계의 발전에서 더 높은 경지의 변천에로 나아가는 우리의 투쟁로정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밝히시고 수도시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문명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줄 때까지 평양시건설사업을 계속 추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천명하시면서 당면한 수도확장건설구상을 소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 4단계 건설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어 화성지구가 인민의 행복하고 문명한 삶의 터전으로만이 아니라 불굴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기적이 깃든 력사의 땅으로 그 이름 더욱 빛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우리 수도의 위대한 웅자와 끝없는 번영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문명과 인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위대한 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당대회결정집행을 성공적으로 완결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또다시 경이적인 위훈을 창조하도록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며 뜨겁게 격려해주시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전체 건설자들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격정이 열광의 환호로 세차게 분출하였다.

화성전역은 조선로동당고유의 계속혁명정신과 원대한 미래를 향한 우리 국가의 전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축도이라고 하신 **김정은**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고 우리 당의 숙원을 창조의 기적들로 떠받들어갈 수도건설자들의 불같은 열의가 착공식장에 차넘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하늘땅을 뒤흔드는 장쾌한 폭음과 함께 새로운 진군 개시를 알리는 축포탄들이 련이어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군민건설자들이 앞으로도 우리 시대, 우리 세대의 명예를 떨치며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오래도록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정천동지, 리히용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재룡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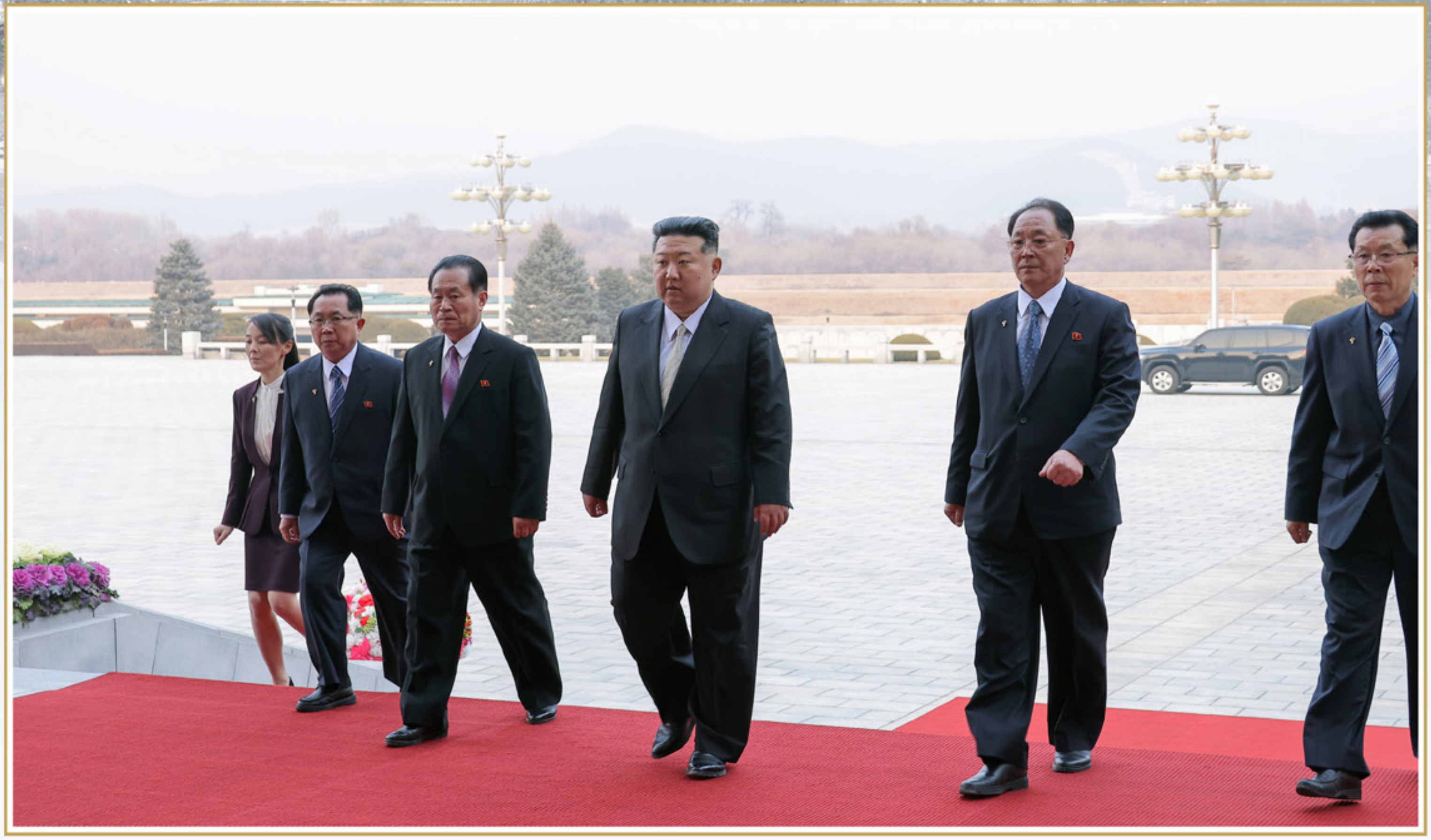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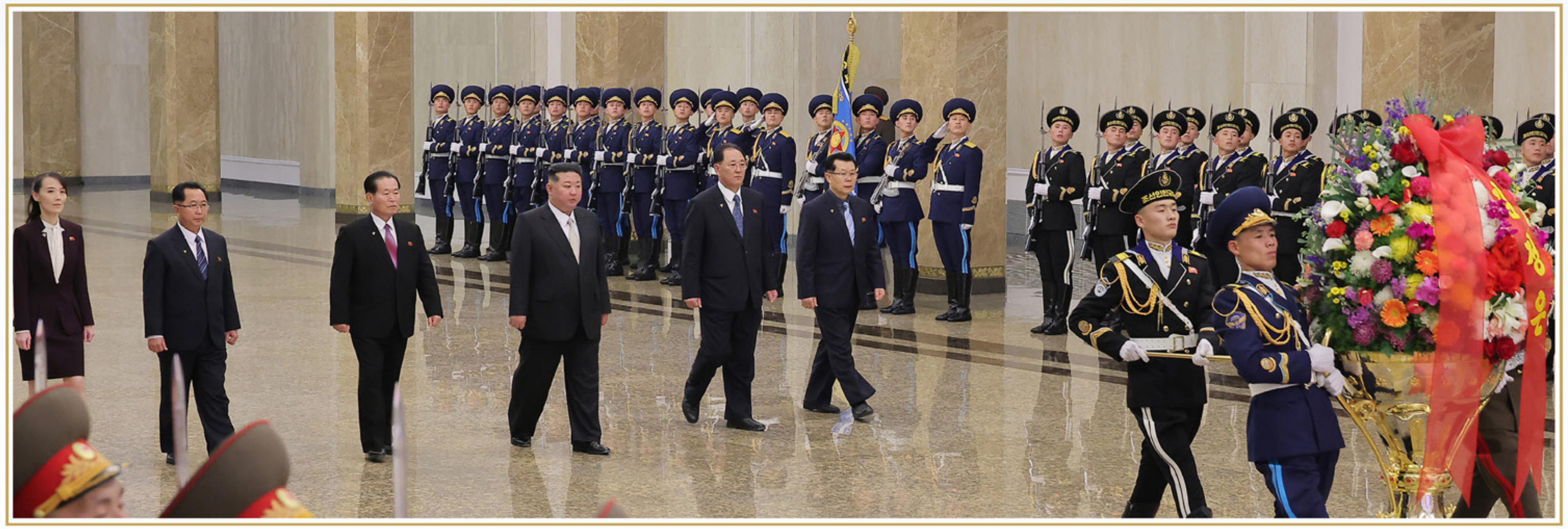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지도간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하여 조국의 무궁한 부강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성스러운 투쟁에 헌신분투하실 엄숙한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뜻깊은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3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중앙미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전국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과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경모의 대하가 끝없이 굽이쳤다.

중앙과 각 도(직할시)의 사진전람회장들을 찾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은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앞날을 열어주신 절세위인의 고결한 혁명생애를 경건히 되새기였다.

평양시와 각 도, 시, 군소재지들의 주요장소들과 전국의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등에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다양한 직관물들이 게시되여 명절분위기를 돋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83돐경축 조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탄생 83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3돐을 경축하여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진행되였다.

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에 즈음하여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만수대예술극장, 동평양대극장을 비롯한 여러 극장들에서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이, 인민문화궁전과 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성, 중앙기관예술소조공연이 진행되여 수도시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었다.

희세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불밝은 창가마다, 거리마다 그리움의 노래로 끝없이 울려퍼지는 16일 밤 수도의 청년학생들은 **김일성**광장에서 경축야회를 펼치였다.

이날 전국각지의 급양봉사단위들이 다양한 명절봉사로 흥성이였으며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사진 최원철, 리진혁
글 박의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각지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첫 실체들이 련이어 준공

성스러운 우리 당의 투쟁사와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특기할 거창한 창조대전의 첫 산아인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전국의 20개 시, 군에 훌륭히 일떠섰다.

2025. 1. 29.

고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더불어 사회주의선경이 태여난 과수고장에 지방공업공장들이 건설됨으로써 고산군에서 발전된 과수업과 함께 지방공업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지역경제를 비약적으로 진흥시킬수 있게 되였다.

2025. 1. 30.

구성시 지방공업공장 준공

국보적인 력사유적이 많고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전국에 이름난 구성시에 당과류와 기초식품, 피복류와 각종 생활필수품, 건재품들을 만들어내는 새 공장들이 일떠섰다.

2025. 1. 31.

어랑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조선동해북변 어랑군에 바다를 끼고있는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활용하여 수십가지의 맛좋은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수산물가공공장과 식료공장, 일용품공장이 특색있게 건설됨으로써 이곳 인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2025. 2. 1.

장풍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시책속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로동당의 숭고한 웅지가 떠올린 장풍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은 장풍군 인민들에게 지역경제의 발전을 활기차게 추동하는 귀중한 재부로 된다.

2025. 2. 3.

금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우리 나라의 공업도인 함경남도에 련포의 온실바다와 《부자시》 신포의 대규모양식장에 이어 함주군을 들썩하게 한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경사가 금야군에도 펼쳐졌다.

2025. 2. 5.

동신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산이 많은 지역적특성에 부합되면서도 현대성과 실용성을 갖춘 지방공업공장들은 두메산간 동신군에도 새 생활, 새살림의 기쁨을 한껏 안겨주었다.

2025. 2. 7.

운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산이 높고 구름이 자주 낀다고 하여 그 이름도 운산인 산골군에 솟아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은 군내인민들에게 아름다운 생활의 약동을 부어주며 지역경제발전을 든든히 받침할 귀중한 창조물이다.

2025. 2. 9.

이천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강원도의 벽촌고장 김화군의 천지개벽과 더불어 이천군에도 인민이 반기고 환호하는 변혁의 실체가 일떠서 도안의 인민들 누구나 격정을 금치 못하며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을 일대 경사로 또다시 경축하였다.

2025. 2. 11.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준공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된 문명부흥의 제일락원을 펼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과 중대결단, 드팀없는 집행력에 의하여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변혁적 위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해 과업이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으로 빛나게 완결되였다.

지방변혁의 새 기적을 보란듯이 안아올 창조의 열광, 활기찬 전진기세

《지방발전 20×10 정책》실행을 위한 신양군,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구성시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건설착공식, 신포시, 대관군, 랑림군, 세포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들이 지역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신양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구성시병원건설착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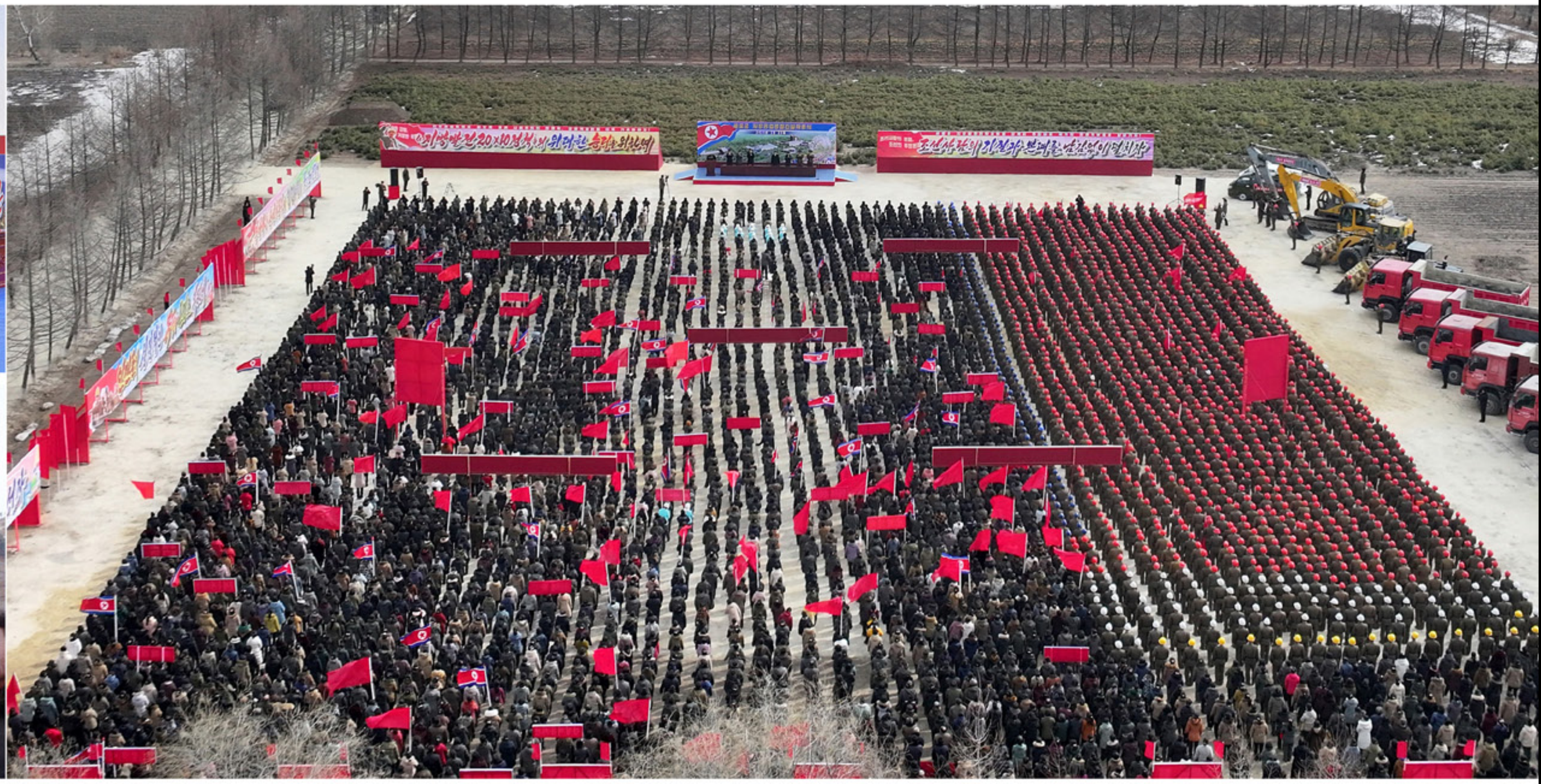
곡산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건설착공식

신포시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랑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대관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세포군 지방공업공장건설착공식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새로 나온 축하장들의 일부

온 나라가 3.8국제부녀절 115돐을 맞으며 순결한 사랑과 다심한 정으로,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가정과 사회에 기쁨을 더해주고 조국을 받들어가는 우리 녀성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정부는 녀성중시, 녀성존중의 정치로 녀성들이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하기에 오늘 우리 녀성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나라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www.dprkportal.kp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minzu.rep.kp www.naenara.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youth.rep.kp www.mediaryu-gyong.com.kp www.mfa.gov.kp www.kass.org.kp www.korean-books.com.kp www.tourismdprk.gov.kp www.korart.sca.kp www.kftrade.com.kp www.korstamp.com.kp www.ryomyong.edu.kp www.moph.gov.kp
www.mirae.aca.kp www.sdprk.org.kp www.yongsaeng.org.kp www.koreanarchi-tecture.com.kp www.korfilm.com.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gpsh.edu.kp www.kiyctc.com.kp www.korelcfund.org.kp www.kza.org.kp www.manmul-sang.com.kp www.cooks.org.kp www.knic.com.kp www.friend.com.kp www.koredufund.org.kp www.ma.gov.kp www.fia.law.kp

기념비적인 수도건설 5개년계획의 마지막단계투쟁은 우리 당이 인민앞에 다지고 드팀없이 리행해온 서약을 완벽하게 결속짓기 위한 올해의 가장 중차대한 창조대전이며 당창건 80돐과 당 제9차대회를 향한 전인민적총진군에 보다 큰 활력을 가세하는 영예로운 혁명사업이다.

© 조선화보사 202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http://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ㄱ-25088028069